

0816(화) 예레미야 33-36장 죽음의 유태

예언자들은 장차 도래할 새 날을 바라보았습니다.
이는 <지금, 여기>의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전제합니다.

여호야김 왕은 국가적 위기 앞에 금식을 선포했지만(36:6-7),
낭독되는 엄중한 말씀에 회개는커녕 두루마리를 칼로 베며(36:23)
화롯불에 던지는 등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(32:33).
그들의 경건은 모양 뿐, 여전히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.

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공격에 잠시 정신을 차리고(34:1-7)
자유를 선포하며 종을 해방하는 등 바른 일을 행합니다(34:8-15).
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
자유선언을 번복하고 종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(34:16).
정직하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도 여러 차례 투옥합니다.
(32:2,12, 33:1, 37:21, 38:13,28, 39:14,15)

왕들은 하나님 대신 땅과 부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.
상황이 호전되자마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죄의 관성은
완전한 진멸과 정화, 새 언약의 비전을 강화시킵니다.
불순종 일색의 유다 사회, 다윗 왕가 왕들의 악행들은
대를 이어 순전한 신앙을 견지하던 레갑 가문과 대조됩니다.
(35장, 왕하10장 참고)

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바벨론 지하에서 자유를 얻습니다(39:14).
다윗 가문의 통치 하에서 땅을 빼앗기고 소외되던 약자들은
오히려 바벨론에 의해 경작지를 부여받게 됩니다(39:10).

유다가 자부해 온 다윗 왕조는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.
존재 이유를 잃은 성전과 왕조는 붕괴 될 것입니다(26장, 36장).
유다가 다시금 불순종으로 유태했듯 바벨론 군 역시 유태해 올 것입니다(34:22).
순종으로 잠시 멀어졌던 죽음과 재앙들도 유태해 올 것입니다(34:17).

나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직진하고 있습니까?

- ❶ 매 순간 직진합니까, 문제가 생길 때만 직진합니까?
- ❷ 상황이 호전되면 주님께 등 돌리며 유태하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예레미야 33-36장